

판단자의 강간통념이 강간사건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영향 - 강간 사건 전 피해자의 일탈행위 여부의 조절효과 -

김 보 경

경기대학교

김 범 준[†]

경기대학교

최 종 안

강원대학교

본 연구는 판단자의 강간통념이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영향이 피해자의 강간 사건 전 일탈 행위 여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세 연구에서 일탈 조건과 비일탈 조건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참가자들에게 피해자 책임과 가해자 책임, 피해자 고통 수준, 가해자 처벌정도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세 실험에서 모두 강간 사건 전 피해자가 일탈 행동을 보이지 않은 경우(비일탈행동 시나리오 조건)에는 강간통념 수준에 따른 강간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강간 사건 전 피해자가 일탈 행동을 보인 경우(일탈행동 시나리오 조건)에는 강간통념 수준이 높을수록 강간 사건의 책임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서 찾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강간통념 수준이 강간 사건 평가에 미치는 효과가 해당 사건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귀인하기 용이한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주제어 : 강간, 강간통념, 일탈, 피해자비난, 가해자비난, 처벌판단

[†] 교신저자 : 김범준,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1622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Tel : 031-249-9193, E-mail : bjkim@kyonggi.ac.kr

2020년에 발생한 n번방 사건은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3월까지 메신저 앱을 이용하여 고액알바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성착취물을 찍게하고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미성년자를 대거 포함하였다. 이 사건에 대한 글과 그 글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피해자들이 스폰을 받고자 했다거나 돈을 벌 목적으로 웹캠을 찍다가 피해를 당한 것이 피해자의 책임이라는 비난과 낙인, 가해행위에 대해 정당화를 볼 수 있다. 즉, 성범죄의 피해의 원인을 일부 피해자의 일탈 행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8년 경찰에 검거된 성폭력 건수는 총 2만 3478건이었다. 그 중 가장 많이 발생한 성범죄는 강제추행(72.63%)이었고 그 다음이 강간(22.54%), 유사강간(3.3%), 기타 강간 및 강제추행(1.5%)의 순이었다. 5대 범죄 중 살인이나 강도, 절도 등의 발생 건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 폭력이나 강간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 통계에서도 강간 사건은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성범죄사건의 발생률은 위의 통계보다 더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에 실시된 범죄피해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신고율이 8.4%에 머물렀으며, 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스토킹, 성희롱, 가벼운 성추행, 심한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중 하나 이상의 경험을 한 471명 중 신고한 경우는 1.1%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원인 중 하나는 앞서 말한 n번방 사건의 피해자를 향한 비난과 같이 다양한 성범죄의 발생 원인에 대해 피해자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시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강간은 다른 유사한 폭력범죄에 비해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도 적은데(Larcombe, 2011), 이러한 원인 중 하나는 판단자의 신념이나 태도에 따라 범죄의 발생 원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Lafree, 1980a; Lafree, 1980b), 이러한 태도가 평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Eagly & Chaiken, 2007; Fazio, 2007). 즉,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양형이나 비난의 정도를 평가할 때, 판단자의 신념이나 태도가 피해자 비난이나 가해자의 책임 정도를 지각하는 데 영향을 주어 결국 가해자 처벌판단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강간의 처벌판단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다루어졌던 태도 및 신념은 강간통념(rape myth)이다. 강간에 대한 통념은 1970년에 처음 제시된 것으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폭력을 지지하는 문화적 신념이다(Brownmiller, 1975; Schwendinger & Schwendinger, 1974). 강간통념은 강간행위, 강간피해자 및 강간범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적이고 고정 관념적인 거짓된 신념으로 정의되어진다(Burt, 1980). 즉 강간을 보는 그 사회의 왜곡된 시각이라 정의될 수 있다(이석재, 최상진, 2001; Payne, Lonsway, & Fitzgerald, 1999). 개인이 강간통념을 믿는 정도를 강간통념(rape myth acceptance)이라고 하는데 강간통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강간통념을 더 잘 받아들이며(Beverly, 1996; Suarez & Gadalla, 2010), 강간통념 수용은 남성다움이나 여성에 대한 적대감, 동성애 혐오 등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nderson & Anderson, 2008; Parrot & Zeichner, 2003).

본 연구에서는 판단자의 강간통념 수용을 피해자 비난에 영향을 미치는 신념 중 하나로 정의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강간통념

의 수용도가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더 낮게 그리고 더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Malamuth & Check, 1985; Quackenbush, 1989), 또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더 책임을 높게, 그리고 높은 비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lumberg & Lester, 1991; Malamuth & Check, 1985; Jenkins & Dambrot, 1987; Linz, Donnerstein, & Adams, 1989; Linz, Donnerstein, & Penrod, 1988; Muehlenhard & MacNaughton, 1988).

성범죄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는 한국에서도 종종 볼 수 있다. 책 ‘반일종족주의’의 저자는 n번방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내게 딸이 있다면 n번방 근처에도 가지 않도록 평소에 가르치겠다. 내 딸이 지금 그 피해자라면, 내 딸의 행동과 내 교육을 반성하겠다.”이라는 글을 남겼다(문지영, 2020). 이 메시지는 결국 피해자의 평소 행실을 n번방 피해의 원인으로 보는 것이다. 특히 n번방의 경우, 피해자들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몸캠이나 조건만남과 같은 일탈 행위를 하였다는 기사의 내용이 피해자 비난을 하기에 더 용이하고 정당하게 만들었다고 판단된다(윤병혜·고재홍, 2006; Bowman, 2008).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는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할 때도 자신이 피해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고통이 없거나 크지 않을 것으로 인지하게 할 수 있다(김은지·박지선, 2011)

성범죄에서 강간통념과 피해자 비난이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재영(2019)은 1990년부터 2017년까지 3년 주기로 중앙일간지 3사의 여성대상 범죄보도 기사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해자에게는 동정적 표현과 변명의 요소들을, 피해자들에게는 피해자의 일탈성을 강조하는 표현들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정보를 읽고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한 과제에서 이러한 정보는 가해자에 대한 도덕적 비난 가능성을 낮추고 피해자에게 그 범죄의 원인을 귀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재영·유영재, 2018; 양동욱, 국혜윤, 백현경, 윤가현, 2012). 또 다른 연구에서는 시나리오에서 피해 사건 발생 전 여성이 음주를 했을 때, 피해자 비난이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Richardson, & Campbell, 1982).

이러한 연구 결과는 판단자가 피해자 비난을 하려면,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발표된 피해자 비난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판단자의 어떠한 신념이 피해자 비난을 높이는지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판단자의 신념이 피해자 비난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것인지 혹은 어떠한 상황이나 정보가 주어졌을 때, 판단자의 신념이 피해자 비난과 가해자 처벌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것인지에 대한 심리학적 과정을 설명하는 실증적 연구는 많지 않다.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판단자의 강간통념이 강할수록 피해자를 더 비난하고 가해자에 대해 적게 비난하고 낮은 처벌판단을 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으며, 판단자의 강간통념이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피해자의 강간 사건 전 일탈 행위 여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1

연구 1에서는 강간통념이 강간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강간 피해자의 사건 발생 전 행위 - 즉 비밀탈 행위 대 일탈 행위에 따라 유의하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다. 강간 사건의 발생 원인을 피해자에게 귀인하는 판단에 정당성을 찾기 용이한 경우인, 피해자 일탈 행위 사건에 대해서만 강간통념이 강간 가해자와 피해자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연구방법

연구 대상 및 절차

경기도 소재 대학교 남녀 학생들 80명(여성 57명, 남성 23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20.49세($SD = 1.88$)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피해자의 일탈 정도에 차이가 있는 두 종류의 강간 사건 시나리오를 읽고 각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판단 과제를 수행하였다. 시나리오 판단 과제를 마친 후에, 연구 참여자들은 자기보고식 척도인 「강간통념 척도」(Burt, 1980)에 응답하였다.

연구 도구

강간 사건 가해자 및 피해자 판단 과제

연구 참여자들은 강간 사건 시나리오를 읽은 후에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책임 정도와 피해자가 경험했을 고통 수준을 판단하여 답변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

게는 피해자의 일탈 행동 수준이 다른 두 종류의 강간 사건 시나리오가 제시되었다. 두 시나리오 모두 실제 성폭력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것으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탈 시나리오

‘중학생인 최○○(여, 15세)는 학교를 중퇴하고 가출하여 방황하다 길에서 만난 손○○씨(남, 45세)를 따라가 집에서 생활하던 중, 2009년 ○월 ○일부터 6차례에 걸쳐 강간을 당하였다.’

비밀탈 시나리오

‘고등학생인 송○○(여, 17세)는 2005년 0월 0일 오후 열 시경 학원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00억 주위를 지나가던 중 00억의 화장실을 이용하러 들어갔다가 30대 초반의 남성이 뒤따라와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폭력을 행사해 강제 강간을 당하였다.’

피해자 책임/가해자 책임/피해자 고통 판단

연구 참여자들은 각 시나리오를 읽고 해당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피해자와 가해자 책임에 관한 질문(‘당신은 위 사건 발생에 있어 피해자(혹은 가해자)에게 얼마나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1점(전혀 책임이 없다)에서 7점(매우 책임이 있다)의 척도에 맞춰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해당 시나리오 속 피해자가 겪게 될 고통(‘당신은 위 사건 발생으로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워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을 7점 척도(1: ‘전혀 없을 것이다’; 7: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다’)상에 평정하였다.

강간통념 척도

Burt(1980)의 강간통념척도를 기초로 이석재(1999)가 개발하여 타당화 한 강간통념척도 20 문항 중 대학생들에게 사용되기에 적합한 12 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기준은 다양한 강간통념 중 사람들이 오해하는 문항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로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여자가 친근감이 있게 남자를 대하는 것은 성적 접촉을 허용한다는 의사표시이다.’, ‘여자가 노브라, 짧은 스커트, 꼭 끼는 상의를 입은 것은 성 피해를 자초하는 것이다.’ 등이다. 각 문항에 대해 1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부터 7점(전적으로 동의한다)의 7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강간에 대한 부정적 신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도록 하였다. 연구 1에서 얻어진 본 척도의 내적 일치도 Chronbach's α 값은 .70이었다.

결과 및 논의

먼저, 측정된 변수들의 기술 통계치와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해당 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예상했던 것처럼, 피해자의 일탈 행동 수준에 따라 피해자와 가

표 1. 연구 1의 주요 변수 기술 통계치 및 상관 계수

변인명	평균	표준 편차	1	2	3	4	5	6	7	8
1 성별	여성 71.3%	-								
2 나이	20.49	1.88	-.53***							
3 강간통념	1.38	.43	-.24*	.19						
4 일탈 시나리오 피해자 책임	2.70	1.43	-.08	-.04	.47***					
5 일탈 시나리오 가해자 책임	4.88	.62	.14	-.04	-.23*	-.03				
6 일탈 시나리오 피해자 고통	6.61	.67	.13	.01	-.47***	-.44***	.40***			
7 비일탈 시나리오 피해자 책임	1.15	.68	.10	.11	-.05	.24*	.23*	.05		
8 비일탈 시나리오 가해자 책임	5.01	.25	.14	-.09	-.20	.08	.50***	.18	.51***	
9 비일탈 시나리오 피해자 고통	6.97	.16	.26*	-.09	-.38**	-.04	.24*	.28*	-.08	.33**

주) 성별은 남성을 1, 여성을 2으로 더미 입력함

* $p < .05$, ** $p < .01$, *** $p < .001$

해자에 대한 사건 발생 책임 판단에 차이가 확인되었다. 비일탈 시나리오 피해자($M = 1.15$)에 비해 일탈 시나리오 피해자($M = 2.70$)의 책임을 크게 보고 하였다. 그에 반해 가해자의 책임은 일탈 시나리오($M = 4.88$)보다 비일탈 시나리오($M = 5.01$)에서 크게 나타났다. 피해자가 경험하는 고통의 정도에서도 시나리오 간 차이가 관찰되었다. 비일탈 시나리오 속 피해자($M = 6.97$)가 일탈 시나리오 속 피해자($M = 6.61$)에 비해 강간 사건으로 더 큰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강간통념 수준이 피해자와 가해자 판단 간에 일부 유의한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이전 연구들처럼 전반적으로 강간통념은 피해자 책임과는 정적인 상관, 가해자 책임 및 피해자 고통과는 부적 관계를 나타냈다. 그런데, 강간통념과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판단 간의 관계는 시나리오의 종류, 즉 피해자의 일탈 행동 수준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강간통념은 비일탈 시나리오에 비해 일탈 시나리오 피해자와 가해자 판단과 더 강한 상관 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강간통념과 피해자 책임, 가해자 책임 그리고 피해자 고통 간의 상관 계수 값은 일탈 시나리오에서는 .47, -.23, -.47인데 반해, 비일탈 시나리오에서는 이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값인 -.05, -.20, -.38이 관찰되었다. 특히, 강간통념과 피해자 책임 그리고 가해자 책임 간의 상관관계는 일탈 시나리오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음으로는 시나리오에 따른 강간통념과 피해자 및 가해자 판단 간의 관계 변화를 보다 직접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피험자 내(within-subject) 설계로서 한 연구 참여자가 반복적으로 일탈 시

나리오와 비일탈 시나리오 속 피해자와 가해자 판단 과제를 수행했기 때문에, 반복측정 변량분석(repeated measure ANOVA) 모형을 활용하여 강간통념과 시나리오의 주효과 및 일탈 행동 × 강간통념 상호 작용 효과를 검증하였다. 피해자 책임, 가해자 책임, 그리고 피해자 고통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시나리오 종류와 강간통념을 독립변인으로, 그리고 성별과 나이를 통제 변인으로 하는 개별 모형들을 구성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¹⁾

주효과

반복측정 변량분석 결과, 피해자 책임($F(1, 76) = 12.54, p = .001$)과 피해자 고통($F(1, 76) = 25.48, p < .001$)에서는 강간통념에 따른 주효과가 있었던데 반해, 가해자 책임에 대해서는 강간통념에 따른 주효과의 경향성이 관찰되었다($F(1, 76) = 3.95, p = .051$). 시나리오의 주효과는 피해자 책임만 경향성이 발견되었을 뿐($F(1, 76) = 3.80, p = .055$), 가해자 책임과 피해자 고통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ps > .620$)

상호작용효과

본 분석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일탈 행동 × 강간통념 상호작용 효과는 피해자 책임($F(1, 76) = 26.68, p < .001$)과 피해자의 고통 ($F(1, 76) = 14.23, p <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면, 가해자 책임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확인되지

1) 연구 1, 2, 3 모두에서 성별과 나이를 통제 변인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모형으로 분석한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않았다($F(1, 76) = 1.93, p = .169$). 확인된 상호작용 효과의 양상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강간통념 점수 중앙값을 기준으로 두 집단(높은 강간통념 집단/낮은 강간통념 집단)으로 구분하여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강간통념이 강한 연구 참여자들은 강간통념이 약한 연구 참여자들과

비교하여 일탈 조건에서 피해자의 책임은 보다 크게($F(1, 76) = 19.60, p < .001$), 그리고 피해자의 고통은 보다 낮게 지각하였다($F(1, 76) = 17.85, p < .001$). 반면 비일탈 조건에서는 강간통념이 강한 연구참여자와 약한 참여자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1, 76)s < 1.20, p > .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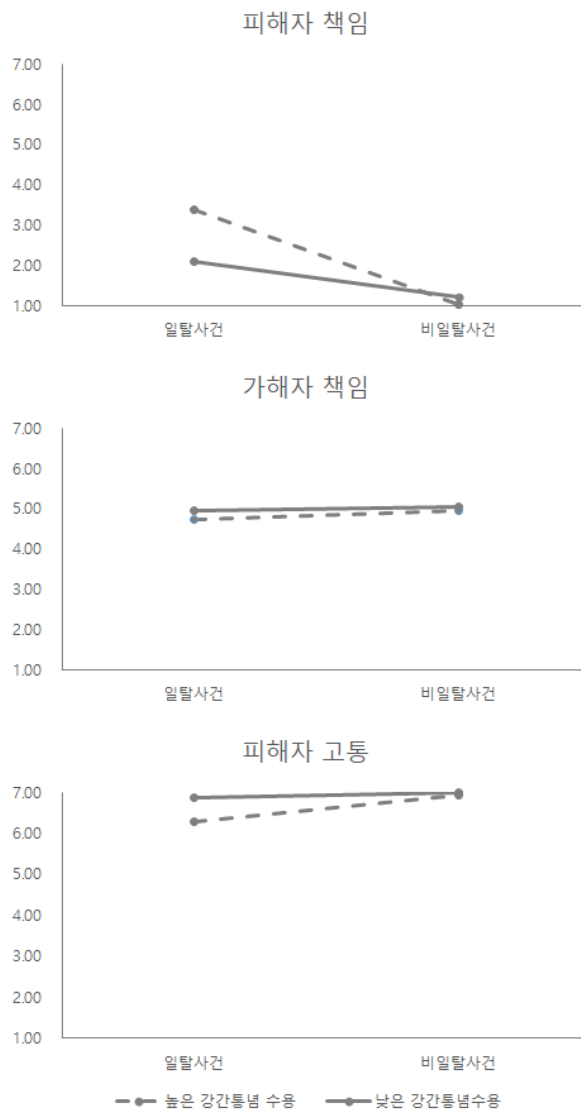


그림 1. 강간통념수용에 따른 일탈과 비일탈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평가 차이 (연구 1)

연구 1의 분석 결과, 피해자의 강간 사건 전 일탈 행위 여부에 따라 강간통념이 강간 사건 판단에 미치는 양상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강간 사건 전 피해자가 일탈 행동을 보이지 않은 경우(비일탈행동 조건)에는 강간통념 수준에 따른 강간 피해자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데 반해, 강간 사건 전 피해자가 일탈 행동을 보인 경우(일탈행동 조건)에는 강간통념이 강할수록 강간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려는 경향성을 보였다. 이는 강간통념이 강간 사건 평가에 미치는 효과가 편향된 판단의 정당화 용이성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지지하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연구 2

연구 2는 연구 1의 결과를 반복 검증하기 위해, 연구 1이 지닌 연구 절차 상의 약점들을 보완하였다. 먼저, 연구 1의 참여자들 중 여성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해당 결과 특정 성별의 반응만을 반영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연구 2에서는 연구자들의 남녀 성비를 균등하게 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1에서는 비일탈/일탈 시나리오 속 피해자의 행동이 의도된 방향으로 제대로 조작되었는지 경험적으로 검증되지 못하였다. 연구 2에서는 본 연구와는 독립적으로 참여자들을 모집하여, 비일탈/일탈 시나리오 속 피해자의 행동의 일탈 정도를 경험적으로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1에서 이용된 비일탈/일탈 조건 강간 사건 시나리오는 피해자를 미성년으로 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연구 1에서 얻어진 결과를 성인 피해자에게까지 일반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연구 2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강간 사건 시나리오를 성인 피해자까지 포함시켜 확대하였다.

또한,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얻어진 결과를 확장하여, 피해자의 일탈 행동 여부에 따라 강간통념 정도가 강간 사건 지각에 미치는 상이한 효과가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평가를 너머 처벌 판단에서도 나타나는지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 대상 및 절차

강원도 소재 대학교 남녀 학생들 91명(여성 45명, 남성 46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연령 평균은 20.81세($SD = 1.78$)이다. 연구 1과 동일한 절차로 연구 참여자들은 강간 사건 판단 과제와 강간통념 척도(Chronbach's $\alpha = .86$)에 응답하였다.

연구 도구

연구 2에서는 피해자의 일탈 행동 여부를 보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조작하였다. 연구 1에서 이용된 청소년 피해자 비일탈/일탈 시나리오에 성인 피해자의 시나리오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따라서 연구 2의 연구 참여자들은 피해자의 일탈 행동 수준이 다른 총 네 종류의 강간 사건 시나리오(일탈 조건 시나리오 2개 그리고 비일탈 조건 시나리오 2개)를 읽고, 매 시나리오마다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의 책임 정도, 피해자의 고통 수준, 그리고 가해자의 수준을 판단하여 답변하였다. 연구 2에

서 새롭게 추가된 시나리오는 아래와 같다.

일탈 시나리오

‘2008년 0월0일 김○○(여,29세)는 퇴근 후 친구들과 남성접대부가 있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늦은 시간 귀가하던 중 집 근처에서 뒤따라오던 20대 중반의 남성이 다가와 위협하여 강제 강간 당하였다.’

비일탈 시나리오

‘대학생인 이○○(여, 23세)는 2010년 ○월 ○일 11시경, 과외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집에 돌아가던 중, 집 근처 골목에서 갑자기 나타난 30대 초반의 남성이 갑자기 폭력을 행사하며 인적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 강제 강간을 당하였다.’

연구 2에 이용된 시나리오 속 피해자의 일탈 행동 수준이 의도한 방향으로 조작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 참여자들과는 별개로 47명의 강원도 소재 대학 재학생들을 새롭게 모집하여 각 시나리오 속 피해자의 일탈 수준을 평정케 하였다. 해당 학생들은 7점 리커트 척도(1: ‘전혀 일탈 행동이 아니다’; 7: ‘매우 큰 일탈 행동이다’)에 맞춰 답변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일탈 시나리오 속 피해자의 행동($M = 5.78$)을 비일탈 시나리오 속 피해자의 행동($M = 1.16$)보다 유의하게 더 일탈적 행동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이는 시나리오 속 피해자의 일탈 행동 수준이 의도한 방향대로 조작되었음을 보여준다.

강간 사건 속 피해자의 책임, 가해자의 책임, 그리고 피해자의 고통 수준은 연구 1과 동일한 문항들을 통해 측정되었다. 연구 2에

새롭게 추가된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준(‘당신은 위 사건으로 가해자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은 7점 리커트 척도 (1: ‘전혀 처벌받지 않아도 된다’ 7: ‘최대한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를 통해 측정하였다.

결과 및 논의

각 일탈 조건의 사건 피해자 책임, 가해자 책임, 피해자 고통, 가해자 처벌 수준은 각 조건 별 두 시나리오의 응답 값을 평균 내어 구하였다. 상관 분석에서 연구 1과 일치하는 결과가 확인되었다(표 2). 강간통념은 상대적으로 비일탈 조건보다는 일탈 조건의 피해자 책임(.42 대 .40), 가해자 책임(-.18 대 -.02), 그리고 피해자 고통(-.28 대 -.02)과 더 강한 상관을 보였다. 또한 강간통념과 가해자 처벌 간의 상관 크기 역시 일탈 조건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었다. 비일탈 조건에서는 강간통념과 가해자 처벌 간의 상관 계수 값이 -.26인데 반해, 일탈 조건에서는 상관 계수 값이 이보다 큰 -.41로 나타났다.

일탈 조건에 따라 강간통념이 강간 사건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상이한 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주효과

먼저 강간통념과 일탈 조건의 주효과를 확인한 결과, 강간 통념은 피해자 책임($F(1, 87) = 24.22, p < .001$), 피해자 고통($F(1, 87) = 5.67, p = .019$), 그리고 가해자 처벌 정도($F(1,$

표 2. 연구 2의 주요 변수 기술 통계치 및 상관 계수

변인명	평균	표준 편차	1	2	3	4	5	6	7	8	9	10
1 성별	여성 49.5%	-										
2 나이	20.81	1.78	-.22*									
3 강간통념	1.42	.58	-.17	.07								
4 일탈조건 피해자책임	1.85	.79	-.08	-.10	.42***							
5 일탈조건 가해자책임	4.89	.33	-.04	.20	-.18	-.19						
6 일탈조건 피해자고통	6.65	.54	.13	.08	-.28**	-.50***	.28**					
7 일탈조건 가해자처벌	6.77	.43	.11	-.05	-.41***	-.23*	.27**	.50***				
8 비일탈조건 피해자책임	1.03	.16	-.07	-.17	.40***	.34**	-.19	-.09	-.05			
9 비일탈조건 가해자책임	4.95	.43	-.08	.06	-.02	.01	.50***	-.04	.23*	-.13		
10 비일탈조건 피해자고통	6.93	.28	.02	.08	-.02	.05	.39***	.15	.12	-.19	.78***	
11 비일탈조건 가해자처벌	6.96	.19	.09	-.02	-.26*	-.23*	.16	.06	.31**	-.42***	.11	.16

주) 성별은 남성을 1, 여성을 2으로 더미 입력함

* $p < .05$, ** $p < .01$, *** $p < .001$

87) = 19.14, $p < .001$ 에 유의한 주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해자 책임 평가에서는 강간통념의 유의한 주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F(1, 87) = 1.30, p = .257$). 일탈 조건 경우에는 피해자 책임, 가해자 책임, 피해자 고통, 그리고 가해자 처벌 정도 모두에서 유의한 주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F(1, 87)s < 1.15, ps > .288$).

상호작용효과

본 분석의 주된 관심사인 시나리오 × 강간통념 상호 작용 효과는 피해자 책임($F(1, 87) = 12.50, p = .001$), 피해자 고통($F(1, 87) = 5.67, p = .019$), 그리고 가해자 처벌 정도($F(1, 87) = 8.97, p <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호 작용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연구참여자들을 강간통념 점수 중앙치를 기준으로 높은 강간통념 집단과 낮은 강간통념 집단으로 구분하여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1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일탈 조건에서는 강간통념이 강한 연구 참여자들이 그렇지 않은 연구참여자에 비해 강간 사건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더 있는 것으로($F(1, 87) = 18.38, p < .001$), 그리고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고통을 경험할 것으로 판단하였다($F(1, 87) = 6.22, p = .015$). 또한 가해자 처벌 판단에서도 일탈 조건에서는 강간통념이 강한 연구 참여자들이 강간통념이 약한 사람들에 비해, 가해자에게 상대적으로 약한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1, 87) = 3.45, p = .067$). 이와는 반대로, 비일탈 조건에서는 피해자 책임에 대해서 강간통념 수용 집단 간 차이가 발견되었지만, 그 정도가 일탈 조건에 비해 크게 작았다($F(1, 87) = 4.74, p = .032$). 피해자 고통, 그리고 처벌정도 판단에서는 강간통념수용이 강한 참여자와 약한 참여자들 간에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F(1, 87) < 1.00, ps > .400$). 즉, 피해자의 일탈 행동이 없는 상황에서는 강간통념 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해자 책임 평가에서는 일탈 행동 × 강간통념 간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F(1, 87) = 1.53, p = .220$).

연구 1과 일관된 결과를 연구 2를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강간 사건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가 용이한 상황, 즉 강간 사건 전 피해자의 일탈 행동이 존재하는 조건에서는 강간통념이 강간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유의한 평가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합해보면, 강간 피해자의 일탈 행동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강간통념이 높은 사람들은 강간통념이 낮은 사람들과 비교하여 강간 사

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부여하였고, 피해자의 고통을 더 약하게 예상하였다. 또한, 가해자의 처벌 평가에서도 강간통념이 높은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과 비교하여 가해자에게 상대적으로 약한 처벌을 내렸다. 반면에 피해자의 일탈 행동이 없는 조건에서는 참여자의 강간통념이 강간 사건 평가와 처벌 판단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연구 2의 결과는 연구 1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연구 2는 연구 1의 주요 결과를 성공적으로 반복 검증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연구 2는 연구 1이 가진 절차를 약점들을 적절히 보완했다는 점에서, 연구 2를 통해 얻어진 일관된 결과는 연구 1의 결과가 연구 절차 상 문제로 얻어진 인위적 양상이 아님을 증명해주는 증거라 하겠다. 또한 연구 2는 피해자 이탈 행동 여부에 따른 강간통념에 따른 효과가 강간 피해자에 대한 평가 뿐 아니라, 가해자 처벌 판단에서도 같은 양상으로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강간 피해자의 사건 전 이탈 행동처럼 강간 사건을 평가하는데 무관한 정보들로 특정 성향, 즉 높은 강간통념을 지닌 사람들은 강간 사건을 왜곡하여 인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해자의 처벌 여부와 강도에서도 편향된 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 3

연구 3은 참여자 간 설계(between subject design) 실험을 통해, 판단자의 강간통념과 피해자의 이탈 행위 여부가 강간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앞서 연구 1과 2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일탈과 비일탈 시나리오 모두에 노출되는 참여자 내 설계(within subject design)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연구의 목적과 가설을 쉽게 유추할 수 없도록 비일탈과 일탈 시나리오를 일탈 여부 이외의 내용(예를 들어, 가해자의 특징이나 피해 장소 등)에서도 일부 차이가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탈 여부 이외의 내용적 차이로 인해, 연구 1과 2에서 얻어진 결과가 피해자의 일탈 행위 여부가 아닌 예상하지 못한 제 3의 요인들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하였고 시나리오가 무선으로 제시되지 않아 순서효과를 배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연구 3에서는 일탈 여부를 제외한 모든 내용이 동일하도록 일탈과 비일탈 시나리오 구성하고, 연구 참여자들을 일탈과 비일탈 조건 중 하나에 무선적으로 할당하였다. 즉, 연구 3은 앞선 연구들과 달리 참여자 간 실험 설계를 차용하여, 강간 피해자의 일탈 행동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판단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보다 엄격히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연구 3은 연구 1과 2과는 다른 새로운 일탈/비일탈 시나리오를 활용함으로써 앞선 연구들을 통해 얻어진 결과가 보다 다양한 일탈 상황들에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보았다.

방 법

연구 대상 및 절차

강원도 소재 대학교와 경기도 소재한 대학교 남녀 학생들 113명(여성 59명, 남성 54명)

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연령 평균은 21.92세($SD = 2.41$)이다. 무선적으로 일탈 조건과 비일탈조건에 각각 58명과 54명의 참가자들이 할당되었다. 성별, 연령, 그리고 강간통념 수준에서 조건 간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앞선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강간 시나리오에 대한 판단 과제 이후, 강간통념 척도(Chronbach's $\alpha = .78$)에 응답하였다.

연구 도구

연구 3에서는 피해자의 일탈 행동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가 모두 동일하도록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연구 3의 연구 참여자들은 일탈이나 비일탈 조건으로 무선할당 되었고, 각 조건별로 제시된 두 종류의 강간 사건 시나리오(일탈 조건 시나리오 2개 혹은 비일탈 조건 시나리오 2개)를 읽고, 매 시나리오마다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의 책임 정도, 피해자의 고통 수준, 그리고 가해자의 처벌수준을 판단하였다. 연구 3에서 사용된 시나리오는 아래와 같다.

일탈 시나리오 1

‘고등학생인 송○○(여, 17세)는 2019년 0월 0일, 오후 10시 40대 남성 김○○에게 자신이 입던 스타킹과 속옷을 30만원에 팔기 위해 ○○역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송○○은 거래를 하러 온 남성 김○○에 의해 근처 화장실로 끌려가 강제 강간을 당하였다.’

일탈시나리오 2

‘대학생인 이○○ (여, 23세)는 2018년 0월 0일 새벽 2시경, 룸싸롱에서 접대부 아

르바이트를 끝내고 집에 돌아가던 중이었다. 이○○는 집 근처 골목에서 주변을 배회하던 30대 초반의 남성에게 인적이 없는 곳으로 끌려가 강제강간을 당하였다.’

비일탈 시나리오 1

‘고등학생인 송○○(여, 17세)는 2019년 0월 0일, 오후 10시 40대 남성 김○○에게 자신이 쓰던 스마트폰을 30만원에 팔기 위해 ○○역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송○○는 거래를 하러 온 남성 김○○에 의해 근처 화장실로 끌려가 강제 강간을 당하였다’

비일탈 시나리오

‘대학생인 이○○ (여, 23세)는 2018년 0월 0일 새벽 2시경, 편의점에서 점원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집에 돌아가던 중이었다. 이○○는 집 근처 골목에서 주변을 배회하던 30대 초반의 남성에게 인적이 없는 곳으로 끌려가 강제강간을 당하였다.’

강간 사건 속 피해자의 책임, 가해자의 책임, 그리고 피해자의 고통 수준은 연구 2와 동일한 문항들을 통해 측정되었다. 단, 앞 선 연구와는 달리 모든 문항들에 대해서 5점 리커트 척도에 맞춰 응답이 이루어졌다.

결과 및 논의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변인 간 상관관계는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이전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강간통념은 피해자 책임과는 정적 상관을, 피해자 고통과 가해자 처벌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주효과

일탈/비일탈 조건에 따른 피해자 책임, 가해자 책임, 피해자 고통, 그리고 가해자 처벌 간의 차이를 일원 분산 분석(one-way ANOVA)를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피해자 책임, 피

표 3. 연구 3의 주요 변수 기술 통계치 및 상관 계수

	변인명	평균	표준 편차	1	2	3	4	5	6
1	성별	여성 52.2%	-						
2	나이	21.92	2.41	-.36***					
3	강간통념	1.46	.49	-.40***	.26*				
4	피해자 책임	1.42	.64	-.14	-.04	.33***			
5	가해자 책임	4.95	.23	.16	-.03	-.07	-.38***		
6	피해자 고통	4.85	.38	-.03	.06	-.32***	-.17	.19*	
7	가해자 처벌	4.92	.22	-.01	.15	-.16	-.18	.22*	.42***

주) 성별은 남성을 1, 여성을 2으로 더미 입력함

* p < .05, ** p < .01, *** p < .001

해자 고통, 그리고 가해자 처벌에서 조건 간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일탈 조건의 참여자들은 비일탈 참여자들에 비해 피해자의 책임(1.73 대 1.12)은 크게, 피해자의 고통(4.77 대 4.92)은 약하게, 그리고 가해자의 처벌(4.88 대 4.97)은 낮게 평가하였다($F(1, 111) > 4.05, p < .05$). 가해자 책임(4.94 대 4.96)에서는 조건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F(1, 111) = .21, p = .644$).

상호작용효과

다음으로,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인 강간통념과 피해자 일탈 여부 간의 상호 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 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앞선 연구 1과 2와 마찬가지로 피해자 책임($F(1, 107) = 5.91, p = .017$)과 피해

자 고통($F(1, 107) = 4.25, p = .042$)에서 유의미한 시나리오 \times 강간통념 상호 작용 효과가 확인되었다. 피해자 처벌에서는 통계적 유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연구 2와 동일한 경향성이 관찰되었다($F(1, 107) = 2.81, p = .096$). 확인된 상호 작용 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각 변수별로 추가적으로 단순 기울기 분석(simple slop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단순 기울기 분석 결과, 일탈 조건에서는 강간 통념과 피해자 책임($B = .55, p < .001$), 피해자 고통($B = -.40, p < .001$), 그리고 가해자 처벌($B = -.14, p = .024$)간에 유의한 관계가 확인되었다. 그에 반해, 비일탈 조건에서는 강간 통념이 피해자 책임($B = .02, p = .896$), 피해자 고통($B = -.11, p = .367$) 및 가해자 처벌($B = .003, p = .962$)과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탈 조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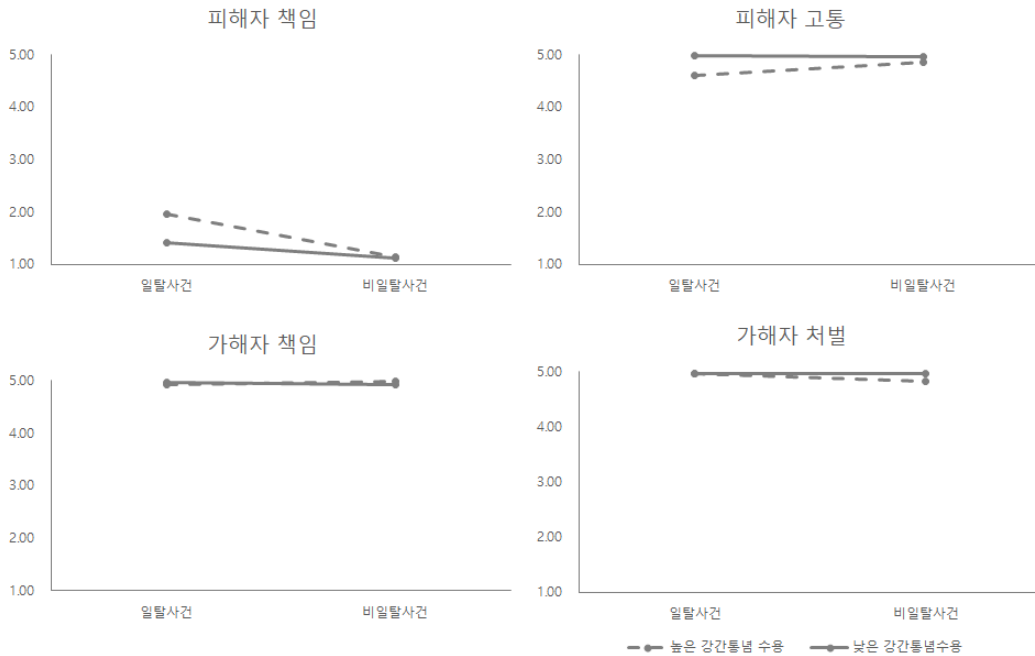


그림 2. 강간통념수용에 따른 일탈과 비일탈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평가 및 가해자 처벌 정도 차이 (연구 3)

서는 판단자의 강간 통념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판단에 영향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데 반해, 비일탈 조건에서는 판단자의 강간 통념이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그림 2 참조).

연구 3에서도 앞선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연구 3이 연구 1과 2와는 다른 실험 설계와 시나리오를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결과가 반복 검증된 점은 본 연구에서 발견한 주요한 결과들이 특정 연구 설계나 시나리오에서만 제한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 아니라, 보다 일반적인 현상임을 보여주는 증거라 하겠다.

종합 논의

강간 및 성범죄의 발생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n번방 사건과 같이 더욱 정교한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 사회는 피해자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낮은 신고율을 보이는 등 낮은 수준의 사회적 인식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판단자들은 사건 전 피해자의 일탈 행위가 있을 때 강간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낮게 지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하여, 판단자들은 강간 사건 전 일탈을 한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 낮게 지각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피해자의 일탈로 인해 강간 사건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의 책임을 묻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심리적 기제는 정의로운 사회 신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Hayes, Lorenz, & Bell, 2013). 정의로운 사회 신념은 기본적으로 세상은 공정하기 때문

에 모든 행위의 결과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있는 태도이다. 이러한 세상이 정의롭다고 믿는 신념은 범죄피해자에 대해 판단할 때, 범죄의 피해자들이 범죄를 유발했거나 어느 정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믿도록 한다. 또한 이로 인해 내가 조심하면 범죄의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심리적 안전성을 확보한다고 설명하였다.

2018년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성폭력이나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문항에 응답에 따르면 설문참가자의 약 절반 가량(46.3%)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동일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데, 가출 혹은 접대부가 있는 술집에서 음주를 한 피해자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묻고 사건 발생의 책임을 크게 지각하였고, 더 나아가 가해자의 처벌판단에 까지 영향을 주었다. 즉, 이러한 정보는 판단자에게 피해자 비난이 용이하도록 만들고 이러한 판단에 대해 정당화 할 수 있는 구실을 준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생각해 볼 때, 언론과 미디어, 경찰서 및 검사와 같이 강간 사건을 직접적으로 보도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피해자의 정보를 다루는데 신중해야 할 것이다.

본 사건에서는 강간사건의 판단에 있어서 피해자의 사건 발생 전 일탈행위가 피해자 비난과 가해자 처벌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 확인하였다. 과거 선행연구에서 강간통념이 피해자 비난과 가해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이러한 반응이 더 활성화 되는 지 알아보는 연구는 부재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강간사건의 피해자

와 가해자에 대한 판단에 판단자의 강간통념이 미치는 영향을 다시한번 살펴보았고, 이러한 영향이 사건 발생 전 피해자의 일탈행동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하였는데 학문적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피해자의 사건 전 행동이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따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판단과 가해자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러한 결과는 언론과 법관, 경찰관이 성범죄를 다룰 때 피해자의 정보를 얼마나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실증적인 연구를 했다는 점에서 함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모두 대학생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결과가 일반화 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과 직업군을 모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 다른 한계점으로는 사건 전 피해자의 일탈행위의 여부가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선행연구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일탈행위와 상황들을 제시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해야 할 것이다.

연구방법의 한계점으로는 시나리오 다양성 부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나리오에서 일탈행동은 가출과 음주로 한정하였는데, 그 외에도 일탈로 지각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이 있으므로 다른 종류의 일탈에 대하여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실험적으로는 재판과 동일한 수준의 정보를 제시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특정한 정보만을 판단자에게 제시하였지만, 재판에서는 더 다양한 정보들이 제시되므로 실제 재판에서의 판단을 보기 위해서는 재판에서 제시되는 정보를 모두 제시하

여 판단과정을 보는 실험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의 사건 전 일탈정보가 강간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관찰하고자 하였으므로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본 연구방법은 적절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부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피해는 다만 가해자 뿐 아니라 성범죄를 수사하고 판단하는 법관 및 경찰 그리고 해당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 그 기사를 보고 반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의 고통을 축소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고, 가해자의 책임을 낮게 평가하는 자세는 특히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키는 등 강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정부와 사회는 평등한 성의식을 고취시키고 강간통념과 같이 왜곡된 신념을 가지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강간사건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경찰관과 법관, 언론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2차 피해에 대한 규정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김은지, 박지선. (2011).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 한국심리학회지: 법정, 2(2), 171-183.
- 김보화, 허민숙, 김미순, & 장주리. (2018). 성폭력피해상담 분석 및 피해자 지원방안 연구 (보고서 번호: 11-1383000-000915-01).

- 여성가족부: 한국성폭력상담소.
- 문지영 (2020), 'n번방' 피해자들도 반성해야 한다는 '반일종족주의' 저자 이우연(신문기사), https://www.ytn.co.kr/_ln/0103_202003251555064612
- 양동옥, 국혜윤, 백현경, 윤가현 (2012). 참가자의 성별, 피해여성의 옷차림 종류와 음주량 수준에 따른 성폭력 책임 귀인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3), 323-345.
- 윤병혜, 고재홍 (2006). 양가적 성차별 태도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난차이: 강간통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1), 1-19.
- 이석재 (1999). 강간통념척도의 개발과 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131-148.
- 이석재, 최상진 (2001). 강간통념수용도에 따른 성행동, 성폭력 및 성폭행 사건지각.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1), 97-116.
- 이재영, & 유영재. (2018). 여성대상 범죄보도가 범죄와 형벌에 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심리연구*, 14, 103-118.
- 이재영. (2019). 언론보도에 나타난 여성 범죄 피해자 비난에 대한 연구. *경찰학연구*, 19(3), 153-184.
- Anderson, C. A., & Anderson, K. B. (2008). Men who target women: Specificity of target, generality of aggressive behavior. *Aggressive Behavior*, 34, 605-622.
- Beverly, A. K. (1996). Gender, gender identity myth acceptance, and time of initial resistance on the perception of acquaintance rape blame and avoidability. *Sex Roles: A Journal of Research*, 34, 81-93.
- Blumberg, M. L., & Lester, D. (1991).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rape. *Adolescence*, 26(103), 727.
- Bowman, S. L. (2008). *The female-to-male rape myths scale: initial scale development*(Doctoral dissertation). Ball State University.
- Brownmiller, S. (1975). *Against our will: Men, women and rape*. New York: Simon & Schuster.
- Burt, M. R. (1980). Cultural myths and supports for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2), 217.
- Eagly, A. H., & Chaiken, S. (2007). The advantages of an inclusive definition of attitude. *Social Cognition*, 25, 582-602.
- Fazio, R. H. (2007). Attitudes as object-evaluation associations of varying strength. *Social Cognition*, 25, 603-637.
- Flintort, R. (2010). Sexual assault. *Violence goes to college: The authoritative guide to prevention and intervention* (2nd ed).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Publisher, LTD.
- Hayes, R. M., Lorenz, K., & Bell, K. A. (2013). Victim blaming others: Rape myth acceptance and the just world belief. *Feminist Criminology*, 8(3), 202-220.
- Jenkins, M. J., & Dambrot, F. H. (1987). The attribution of date rape: Observer's attitudes and sexual experiences and the dating situation.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7(10), 875-895.
- LaFree, G. D. (1980a). The effect of sexual stratification by race on official reactions to rap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5, 842-854.
- LaFree, G. D. (1980b). Variables affecting guilty pleas and convictions in rape cases: Toward a

- social theory of rape processing. *Social Forces*, 58, 833-850.
- Larcombe, W. (2011). Falling rape conviction rates:(Some) feminist aims and measures for rape law. *Feminist Legal Studies*, 19(1), 27-45.
- Linz, D. G., Donnerstein, E., & Penrod, S. (1988). Effects of long-term exposure to violent and sexually degrading depictions of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5), 758.
- Linz, D., Donnerstein, E., & Adams, S. M. (1989). Physiological desensitization and judgments about female victims of violence.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15(4), 509-522.
- Lonsway, K. A., & Fitzgerald, L. F. (1994). Rape myths: In review.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8, 133-164.
- Malamuth, N. M., & Check, J. V. (1985). The effects of aggressive pornography on beliefs in rape myths: Individual differenc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9(3), 299-320.
- Muehlenhard, C. L., & MacNaughton, J. S. (1988). Women's beliefs about women who "lead men o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7(1), 65-79.
- Parrot, D. J., & Zeichner, A. (2003). Effects of hyper-masculinity on physical aggression against women.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4, 70-78.
- Payne, D. L., Lonsway, K. A., & Fitzgerald, L. F. (1999). Rape myth acceptance: Exploration of its structure and its measurement using the Illinois Rape Myth Acceptance Scal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3(1), 27-68.
- Quackenbush, R. L. (1989). A comparison of androgynous, masculine sex-typed, and undifferentiated males on dimensions of attitudes toward rap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3(3), 318-342.
- Richardson, D., & Campbell, J. L. (1982). Alcohol and rape: The effect of alcohol on attributions of blame for rap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8(3), 468-476.
- Schwendinger, J. R., & Schwendinger, H. (1974). Rape myths: In legal, theoretical, and everyday practice. *Crime and Social Justice*, (1), 18-26.
- Suarez, E., & Gadalla, T. M. (2010). Stop blaming the victim: A meta-analysis on rape myth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5(11), 2010-2035.

1 차원고접수 : 2020. 09. 17.

심사통과접수 : 2020. 11. 10.

최종원고접수 : 2020. 11. 23.

**The influence of rape myth on evaluating rape victim and perpetrator:
focusing on moderation effect of victim's deviant behavior**

Bo Kyung Kim

Kyonggi University

Beom Jun Kim

Kyonggi University

Jong An Choi

Kangwon National University

Rape myth acceptance may influence victims are treated and perpetrator blamed and sentenced. And this relationship could be moderated by victim's deviant behavior before rape such as teenage running away from home or drinking alcohol.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among rape myth, deviant behavior, blaming victim, pain of victim, responsibility and blame for perpetrator and punishment for the perpetrator. Findings suggest that participants with high rape myth acceptance compared to participants with low rape myth acceptance blamed victim more and blamed and thought responsible the perpetrator less. And this relationship was only significant when the victim had deviant behavior before rape happened. This result shows that specific information(deviant behavior) about victim could trigger rape myth to blame victim and judge the perpetrator leniently. Th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limita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 sex offender, Rape Myth, adult/adolescent, deviant behavior, victim blaming, perpetrator blaming, punishment